

“조현병 환자가 흥기를”... 경찰 대응은

보육교사 살인사건 증거 ‘동일성’ 논란 국과수 미세검유·CCTV 영상 분석가 증인 출석

제주경찰청 정신질환자 대응 사례 25건 분석 “정신질환 판단·입원 불가할때 보호대책 전무” 성인 정신질환자 989명... 조현병 환자 459명

지난 3월 21일 오전 7시30분쯤 “조현병 환자가 흥기를 소지한 채로 학교 앞을徘徊하고 있다”는 신고가 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면서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진입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지만,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감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와 보건소 공무원 등을 소집해 처리 방안을 협의한 후에야 해당 피의자를 검거가 아닌 제주

시내 병원으로 입원시켰다. #같은달 30일 오전 3시37분에는 “어떤 남자가 집으로 들어와 나가자 않는다”는 신고가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에 들어왔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집 안을 둘러봤지만, 신고 내용에 있던 남자는 없었고, 정작 신고자가 “죽고 싶다”며 흥기로 자해 시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신고자의 딸 사진으로 대화를 유도한 뒤 흥기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귀가할 경우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경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를 호출해 현장 상담을 실시하게 하고,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 사례들은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 사건 25건 중 2건으로, 지난달 29일 제주청이 개최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사례 발표회’에서 공개됐다.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발표회에서 나온 문제점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정신질환자 여부 판단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과 병실 부족 등의 이유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경우 보호 대책 없이 귀가를

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별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련 교육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출동·상담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관계 유지 ▷입원 불가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검토 등을 과제로 도출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것이 경찰”이라며 “이번 발표회를 시작으로 정신질환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등록 정신질환자는 1352명(성인 989명·아동 363명)으로, 성인 정신질환의 경우 조현병 459명, 우울증 280명, 양극성 장애 82명, 신경증 22명 등의 순이었다. **송은범기자**

제주지법 어제 3차 공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 구속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미세검유와 CCTV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신체와 옷가지 등에서 검출된 섬유가 당시 박씨가 입었던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됐고, CCTV 분석을 통해서도 박씨가 운행한 노란색 캡등(燈)이 달린 흰색 NF소나타 등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동일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미세검유나 CCTV에 찍힌 텍스가 박씨의 것과 유사하다는 하지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CCTV를 분석했던 감정인은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 등 4곳에서 찍힌 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NF소나타 텍스와 유사한 특징이 나왔다”면서도 “하지만 특징이 발견된 것일뿐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박씨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미세검유를 분석한 감정인은 “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는 같은 옷에서 나온 섬유라도 변동성이 심해 동일성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사건에서 나온 섬유 증거 역시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동일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제시된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복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지법 “또 같은 범행” 실형

병역법 위반으로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또 다시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제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2016년 6월에도 제주지법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수형생활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농약 살포중인 무 밭 2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농경지 무밭에서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국토부 2018년 전국 간선도로 교통량 조사결과 제주, 버스 교통량 전국 최고 증가

전년 대비 8.9% 늘어

제주도의 버스 교통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전국 주요 간선도로 2018년도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일 평균 교통량은 1만 4964대로 2017년 1만 4921대와 비슷했다. 주요 간선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을 말한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와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으로 1일 평균 교통량은 2012년

이후 전체적으로 증가추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교통량은 일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지역의 교통량은 2018년 7480대로 2017년 7122대에 비해 5%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도의 경우 2018년 1만 1455대로 집계돼 1년전인 2017년 1만 1351대와 비교해 0.9%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전국 1일 평균 승용차

는 2018년 1만 728대로 2017년 1만 648대에 비해 0.8%, 버스는 2018년 392대로 2017년 386대에 비해 1.6% 증가했다. 반면 화물차는 2018년 3844대로 2017년 3887대에 비해 1.1% 감소했다. 제주도의 버스 교통량은 2018년 477대로 2017년 438대에 비해 8.9%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 증가 주요 원인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2017년 8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김현석기자**

제주소방서 비상구 폐쇄행위 10곳 적발

최근 160곳 대상 불시단속

제주소방서는 지난달 25일 지역내 다중이용업소 등 16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합동단속반(16개반) 40명은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화재 시 인명대피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 폐쇄행위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으로 야간에 진행했다. **김현석기자**

불시단속 결과 총 160개소 중 10개 업소에서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비상구에 전차도어락을 설치하는 등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 및 물건을 적치한 7개소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불량대상 3개 업소 4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김현석기자**

하룻새 잇따른 화재사고로 2명 숨져

잇따른 화재사고로 2명이 숨졌다. 2일 오전 7시47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한 단독주택 2층에서 훗불취급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택 2층에 거주하던 김모(95)씨가 숨지고 주택 일부가 소실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가 거실에 놓은 촛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앞서 같은날 오전 2시24분쯤에는 제주시 아라2동 소재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오전 2시44분쯤 완진됐으나, 이 사고로 안방에 있던 문모(41)씨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 관계자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석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질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 완효적 질소비 효과
- 선충 밀도의 저하
- 토양소독 효과
- 유기물의 부숙 촉진
- 석회효과
-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 잡초의 경감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토양의 비옥화
- 토양 미생물 활성화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점급 품목** 4중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연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 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맛과 향이 좋은 감귤(만감)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하하농법만이 해결책이다

당 H2O+CO2+햇빛(광)조화 => 당상승
◎ 꽃이 성상개비 ◎ 꽃이 공알 ◎ 2차낙과 후 일주일 간격 2회 ◎ 과일색이 탈색될때 3회 => **해피한그린** + **글루칼** 엽면시비

양양(감) 내피를 양양막 또는 양양이라 하는데 양양을 부드럽고 씹히는 정도가 가볍게 하려면 => 몸순이 녹화되면 첫 세균(뿌리)발생시 자연(천연) 가리가 9% 들어있는 **하이휴믹** 토양관주

향 감귤(만감)을 먹고나서 여운의 향을 입안에 퍼지기 위해 착색시 => **해피한그린** + **글루칼** + **팡이엔** 을 2번 엽면시비

해피한그린 이온이 3개인 희토 원소가 들어있는 복합생육조절제
글루칼 포도당 칼슘(글루콘산)으로 높은 흡수율을 자랑
팡이엔 고기능 식이유황(MSM)함유된 환경친화적인 고기능 생육 촉진제
하이휴믹 알카리성 천연가리(K-부식산)로 친수성이 뛰어난 포타슘 휴믹산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